지역순환형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의 모색

김 억 수
푸른서천21 사무국장

에너지와 물질 순환을 거스르는 신자유주의적 생활방식과 자연에 대한 태도는, 현 세대는 물론 다음세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뿌리 깊은 자본주의 신앙의 오류는 승자독식의 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존재하게 하고 있다. 녹색혁명형 농업, 생물권의 파괴와 감소, 화석연료의 고갈,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고통, 지구적 빈곤의 재생산 등의 문제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소유, 그리고 더 높은 생활수준을 추구하는 사회는 점점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가 계속되는 한 지속가능한 우리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되는 지역순환형사회운동은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 호혜와 신뢰를 채워 넣는 새로운 대안사회로의 길을 지역과 마을에서부터 모색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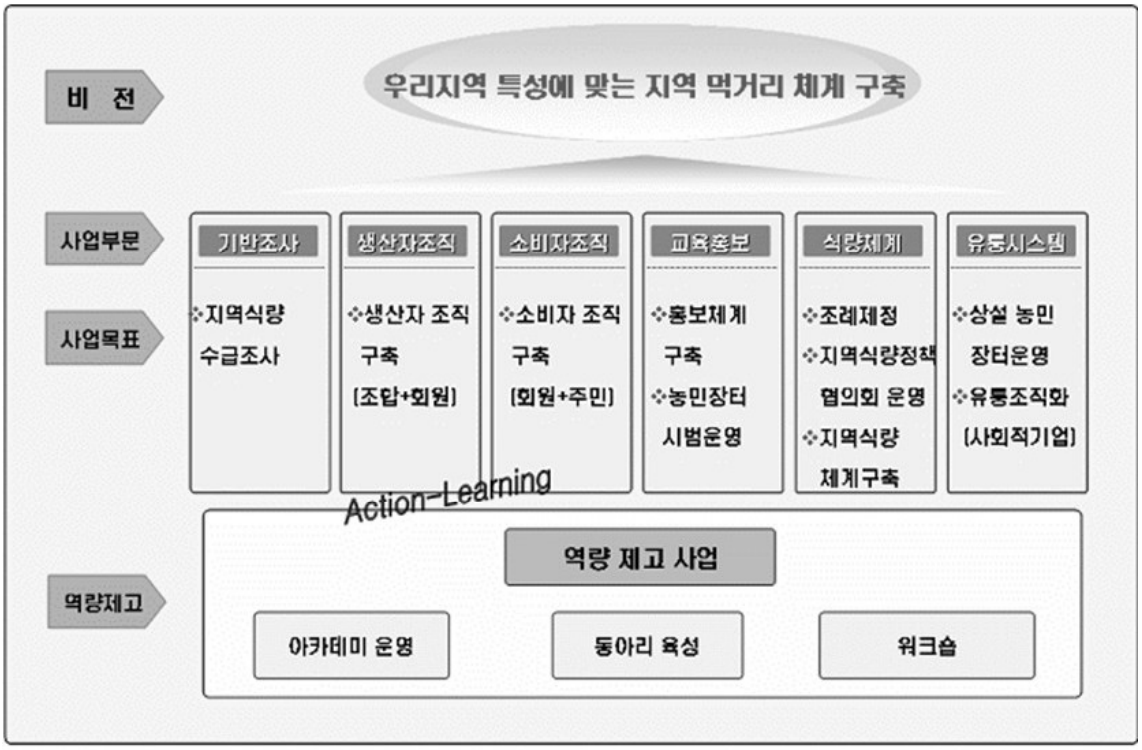
지역순환형사회를 위한 서천지역의 자그마한 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서천군은 인구 6만에 13개읍면(2개읍, 11개면)이다. 재정자립도는 충남 최하위 수준이고 농수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52%), 서비스업(19%), 제조업(9%), 수산어업(6%)] . 그러나 인구고령화, 문화여가시설 부족, 일자리 부족, 경제적 낙후 등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서천군이 지닌 장점은 지리적으로 산과 강, 바다로 이어져 있으며 갯벌과 철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천군은 '어메니티 서천', '생태도시 서천' 이라는 슬로건으로 생태환경과 경제의 관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천나눔공동체〕

서천나눔공동체는 지역화폐운동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2008. 12).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물품, 재능 등을 지역화폐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적 삶과 경제적 도움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성, 소비위주 생활방식의 관성 등 운동성의 확산이 과제로 남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



자료: 서천군

〔지역학교 – 서천생태문화학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과 지역교육은 주민들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생태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따라서 우리지역의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나게 한다. 서천생태문화학교는 서천의 생태, 역사문화, 농업,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하면서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몇 년 동안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지역학생과 주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서천의 생태와 문화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헌과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